

< 추천도서 목록 >

딱 한번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신비의 찻집 '푸니쿨리 푸니쿨라'. 이곳을 찾아온 네명의 남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구의 딸에게, 돌아가신 엄마에게, 과거의 연인에게,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빚어낸, 서툴지만 따뜻한 네 가지 거짓말.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네 남자의 눈물겨운 사랑이야기

세상에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 책에서는 노력 끝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 열다섯 살의 케이시를 만날 수 있다. 케이시는 스스로 걱정과 불안을 조절하는 7가지 방법을 알게되고 새롭고 겁나는 일을 피하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살아가려 한다.

이 책의 주인공 톰 해저드는 겉보기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반면 사실 약 600년을 산 사람이다. 이유는 보통사람들보다 성장속도가 15배나 느린 희귀 질병. 이 병으로 인해 톰은 중세시대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현대에는 그를 의료회사, 제약회사들이 실험체로 쓰려 한다. 그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외모를 들키지 않기 위해 8년에 한번 신분을 바꾸며 정체를 감추고 있다. 이런 그가 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에는 한없이 약한 사람인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떠올리며 밀어내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에 들어온 그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세계 책의 날

세계 책의 날은 매년 4월 23일이며 1995년 국제연합총회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날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왜 4월 23일 일까요?

날짜가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탈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에서 유래했으며,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극작가

작품명

헛소동, 맥베스, 한여름 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폭풍우 등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
최초의 근대 소설을 지은 에스파냐 작가

작품명

돈 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우리 도서부원들을 소개합니다.

< 1학년 >

1반 4번: 원선아
2반 1번: 강교빈
3반 1번: 김소윤
3반 7번: 이보민
4반 24번: 편지윤

1학년 대표:

친구나 형, 누나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도서관의
도서관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2학년 >

2반 1번: 강인혜
2반 4번: 김민지
2반 10번: 하채린
2반 16번: 심승현

2학년 대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3학년 >

1반 2번: 박선은
1반 5번: 이수빈
2반 14번: 심유성
2반 17번: 윤대근
1반 25번: 오유빈

3학년 대표:

3학년 도서부 이수빈입니다. 제가 원하던
도서관에 들어오게 되어 기쁩니다.
마지막년도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 '좋은 책' 고르는 법 >

첫 번째,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 코너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스테디셀러는 꽤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책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보다는 좀 더 오래두고 읽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고전을 무서워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성을 고려하면 고전만큼 좋은 선택도 드물다. 길게는 천년이 넘도록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목록이니 당연하다. 고전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고 지루한 책만은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등은 읽기 시작하면 무서운 몰입감을 발휘하는 '재미 있는' 책들이다.

세 번째, 만화나 자기계발서라고 무작정 무시할 일은 아니다.

만화는 텍스트로 된 매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장점이 많은 매체다. 파우스트 같은 난해한 고전의 워밍업으로 <만화로 읽는 불멸의 고전시리즈>를 봐도 괜찮다. 또한 자기계발서라도 해도 <카네기 인생론>같은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네 번째, 출판사에도 전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령 순수문학에 '창작과비평사', '민음사', '문학 동네'가 있다면 인문 관련으로 '소명출판사'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다. 해외문학은 단연 '열린 책들'이 돋보인다. 이 출판사는 장정과 표지디자인 그리고 번역이 수준급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사이언스 북스'가 선두주자이듯 출판사에도 전문 영역이 있다.

